## 14

2019년 2월 21일 목요일 *스로*초동아

#### 영화 '화려한 휴가'는?



## 소시민의 관점에서 본 1980년 5월 18일 광주

5·18 광주민주화운동을 드라마로 구성한 작품. 부모를 일찍 여의고 고교생인 동생 과 살아가는 택시기사 민우, 그가 짝사랑 하는 간호사 박신애와 그 아버지인 예비역 대령 박흥수 등 소시민들이 겪어야 했던 1980년 5월 광주의 이야기다. 2007년 김지 훈 감독은 광주 시민들을 향한 진압군의 발포 장면 등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이 야기를 풀어 나갔다. 김상경, 안성기, 이요 원, 이준기가 주연했다.

편집 | 심승수 기자 sss23@donga.com

# 잔인한 봄날 그후…아직도 웃지 못하는 영혼들

는 앞에서 친구·가족 잃은 그날의 악몽 잇단 왜곡·망언, 살아남은 자슬픔 더해

하필 학과 동기생의 생일이었다. 이른 저 녁부터 값싼 안주에 몇 병의 소주를 사이에 두고 동기생들은 낄낄거리고 있었다. 한 친 구가 술집으로 뛰어 들어왔다.

"야! 000 형이 끌려갔어!"

동기생들은 '그래서 뭘 어쩌라는 거냐' 는 표정으로 눈을 깜빡였다. 친구들의 무 심한 반응에 분을 삭이지 못한 녀석은 이 내 자리에 한 바가지 욕설을 퍼붓고는 다 시 뛰쳐나갔다.

학과 선배인 000 형이 너른 잔디광장에 자리 잡고 앉은 그날, 햇살은 맑았다. 선배 는 '예비역'으로 불린 복학생이었다. 한쪽 다리가 다소 불편한 장애인이었던 그는 여 느 복학생들처럼 도서관과 강의실만을 오갈 뿐 다른 곳에는 눈을 돌리지 않는, 평범한 대 학 2년생이었다. 그런 그가 잔디광장에 모여 든 400여 명의 무리들 사이에서 착잡한 표정 으로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.

#### ●어느 봄날의 싸움

로 향했다. 선배도 그 틈에 섞였다. 교문 밖 에서는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대열을 재 정비하고 있었다. 교문을 사이에 둔 치열한 투석전을 예고했다. 아직 최루탄이 터지기 전인데도 어떤 여학생들은 두꺼운 파일을 품에 안고 한 손으로는 코를 막은 채 급하게 교문을 빠져나가기도 했다.

무리들은 평소처럼 캠퍼스 바닥에 깔린 보도블록을 깨지 않았다. 깨어진 보도블록 조각은 늘 교문 투석전에 쓰였다. 하지만 이 날 무리들은 그것에 손을 대지 않았다. 그저 구호만을 외치며 교문 밖으로 나아갔다.

그때였다. 경찰은 최루탄을 쐈다. 평! 평! 눈 맵도록 희뿌연 분말이 쏟아져 내렸다. 경 찰은 이내 무리를 향해 달려들었다. 그리고 는 교문 안으로까지 진입했다. 앞서거니 뒤 서거니 달아나던 무리들 가운데 일부가 넘 어지기 시작했다. 다리 불편한 복학생 선배 가 휘청거리며 연행됐다. 소식을 들은 또 다 른 무리들이 새롭게 전열을 구축했고. 숫자 는 1000여 명으로 불어났다.

결국 학교 측이 나서서 경찰에 석방을 요 청했다. 몇 시간이 지나 끌려갔던 선배는 풀 려났다. 돌아온 선배는 소주를 들이켜며 아 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눈물을 흘렸다.



영화 '화려한 휴가'는 1980년 5월 광주를 그려냈다. 곤봉과 총칼로 시민들을 "분노와 죽음의 공포"에 치떨게 한 폭력은 여전히 씻겨내지 못하는 현재적 고통이 되

앉았던 것은 한때 자신의 고향에서 벌어졌던 참혹한 현장을 도저히 잊을 수 없었기 때문이 었다. 이웃에 살던 누군가가, 친구 중 어떤 이 가 세상을 떠났거나 상처를 입었거나 아님 사 라져 버렸을지도 모른다. 그 아픔을 아무에게 무리들은 집회를 마치고 이내 교문 밖으 도 드러내지 않았던 그가 남도의 어느 한 도 시 출신이었음을 안 것은 바로 그날이었다.

#### ● '살아남은 자의 슬픔'

그의 고향에서는 한 청년이 택시를 몰며 살아가고 있었다. 흉흉했던 시절, 그는 고교 생인 동생을 찾으러 거리로 나섰다. 동생은 군중 속에 섞여 있었다. 부모를 일찍 여읜 그 는 우등생인 동생에게서 살아가는 힘을 얻 곤했다. 그런 동생이 무참한 폭력 앞에 그대 로 노출되는 위험을 그는 두고 볼 수 없었다.

하지만 폭력 앞에서 그 누구도 무사할 수 없었다. 그래서 청년은 도청으로 나아갔다. 인간으로서 지닌 최소한의 존엄성 아니 양 심을 저버릴 수 없었다. 숱한 사람들은 양심 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그러지 않 았다. 그것은 목숨을 내건 것이기도 했다.

그는 최후의 순간에 환하게 웃었다. 그만 이 아니었다. 동료 택시기사와 '잘 나가던 제비족'과 예비역 대령 등 수많은 소시민들 …. 모두가 환한 웃음을 지었다.

대체 목숨을 내걸고서야 비로소 웃을 수 있는 그 잔혹한 역설의 정체는 무엇일까.

이제는 신랑이 될 청년을 옆에 두고 선 신 부는 웃지 않았다. 아니 웃을 수 없었다.

목숨을 내걸고서 웃었던 자들은 결코 원하 그가 무리들과 함께 잔디광장에 자리 잡고 지 않았던 죽음을 맞았다. 살려고, 살아내려

고 몸부림쳤지만 끝내 무력할 수밖에 없었던 떼죽음이었다. 그 수많은 죽음들 앞에서 신 부는 웃어서는 안 되었다. 신부는 그렇게 떼 려야 떼어낼 수 없는 굵은 생채기의 딱지를 오래도록 가슴에 품은 채 아파했을 것이다.

앞서 독일 시인 베르톨트 브레히트는 "그 많은 친구들보다 오래 살아 남"은 자신에게 바로 그 친구들이 꿈에 찾아와 "강한 자는 살아 남는다"고 되레 위로를 건널 때 "나는 자신이 미워졌다"(시 '살아남은 자의 슬픔') 고 털어 놓았다. 하지만 떼죽음은 강하지 못 했던 탓이 아니었다. 더 없이 강했던 때문에 죽음은 찾아오고 말았다. 그렇기에 떼죽음 은 스스로를 미워할 수 없다. 오히려 스스로 를 미워하는 것은 슬픔을 안고 살지 않으면 안되는 수없는 '살아남은 자'들의 몫이 되어 버렸을지 모르겠다.

### ● "인간의 존엄성, 그것은 착각인가?"

이 같은 짐작은 그저 '살아남'기는커녕 그 실상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의 어렴풋 한 정서적 공감에서 나온 것만은 아니다.

"한 사람의 생애에서 더러는, 저 혼자 힘 으로는 결코 건널 수 없는, 운명과도 같은 거 대한 강물과 맞닥뜨리기도 하는 법이다"고 말한 작가 임철우는 "그 도시에서 바로 그 강과 마주쳤을 때 스물여섯살의 대학 4년 생"이었다. 그는 "분노와 죽음의 공포에 치 떨며, 그 버려진 도시에서 그들만의 힘으로 홀로 견뎌내야 했던 봄날 열흘의 낮과 밤"을 힘겹게 돌아보며 그곳에 있었던 세 형제의 이야기를 대하소설 '봄날'에 담아냈다.

무려 10년의 세월을 문학적 기록으로 써 내려간 그는 이미 1980년대 초반부터 "운명 과도 같은 강물"을 건너려다 실제로 주저앉 곤 했나보다. 숱한 비유와 은유로써 "그 도 시"에서 벌어졌던 참혹했던 일들을 소설로 진술했던 작가는 때마다 "책꽂이 절반을 채 울 분량의 자료들을 뒤적여가다가 나도 모 르게 울분에 차올라 혼자 책상에 앉아 컥컥 울음을 터뜨린 적도 많았다"고 고백했기 때 문이다. "어차피 고통은 그것을 기억하는 사 람의 몫일 수밖에 없다"는 어쩔 수 없는 무 참함을 그는 한 시도 잊지 않았을 것이다. (이상 '봄날' 인용)

작가 한강도 열다섯 소년 동호와 그 주변 인물들이 겪었던 "봄날 열흘의 낮과 밤"에 대해 이야기했다. 그 역시 "당신들을 잃은 뒤. 우리들의 시간은 저녁이 되었습니다. 우 리들의 집과 거리가 저녁이 되었습니다. 더 이상 어두워지지도, 다시 밝아지지도 않는 저녁 속에서 우리들은 밥을 먹고, 걸음을 걷 고 작을 잡니다"면서 "당신이 죽은 뒤 장례 식을 치르지 못해.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습 니다"며 아파했다.

무심코살아가는 혹은 애써 잊으려살아가 는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고통 스런 기억 탓이다. 그러면서 한강은 물었다.

39년 전 5월, 남도의 땅 광주에서 벌어졌 던 참혹한 일들과 관련해 난무하는 왜곡과 부정의 망언은 최소한으로 존엄해지려는 '살아남은 자'들을 비웃고 있음을, 한강은 그렇게 뼈아픈 물음으로 가리키고 있다.

전문기자 tadada@donga.com















브라운

※ 블랙도 있습니다.







(농협) 352-1526-2684-03 최용홍 (네네쇼핑)